

# 한·일 「비난표현」 연구

## - 대한항공 086편 회항사건의 「비난」을 중심으로 -

김정현\*  
bekka-kim@hanmail.net

### <目次>

1. 들어가며	3.3 연구자료
2. 선행연구 검토	4. 결과 및 분석
3. 연구방법	4.1 결과
3.1 「비난」의 정의 검토	4.2. 분석
3.2 「의미내용」에 따른 「비난표현」 분류	5. 나오며

主題語: 비난표현(Criticism Expressions), SNS(Social Network Services), 의미내용(Semantic Content), 화용(Pragmatics), 전략(Strategy)

## 1. 들어가며

근년에 한국 국적기를 한 개인이 회항하도록 지시해 국제적으로 국가적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일명 땅콩회항<sup>1)</sup>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두고 각국의 뉴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 Social Network Services(이하 SNS)상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기사에 의하면 특히, 이 사건은 갑의 횡포라는 점과 재벌 3~4세의 월권행위가 두드러졌던 사건으로 회장의 딸이며 부사장이라는 직급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반말, 폭언, 폭행을 포함한 횡포를 부리고 기장을 뛰어넘는 권력을 휘둘러서 비행기를 회항시킨 항공사고이다. 이하의 <그림 1>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다룬 기사와 뉴스 화면을 캡처한 내용이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일본어언문화학부 강사

1) 대한항공 086편 회항사건이라고도 한다. 이동 중인 비행기는 10분 만에 멈춘 뒤 후진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이륙했다. 이 사건은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였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기내 서비스로 제공된 마카다미아넛으로 땅콩 회항, 땅콩 리턴으로 불린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5d3015n1503> 인용



<그림 1> 2014.12.12. YTN방송 및 2014.12.13. 중앙일보 기사내용

SNS라는 가상의 세계에서는 오프라인의 경우와 달리 자신의 죄의식이나 사회적 죄악감 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이버상의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사기에 이용되는 인터넷 피싱은 물론이며 금전적인 사기와 같은 범죄와 달리 악성댓글이라는 것으로 특정 상대의 감정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다. SNS라는 속박 받지 않고 드넓은 가상의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특징의 상대에게 말하고 싶은 대로 악의에 찬 말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댓글이라는 형태로 내뱉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이 대두되어 국제적으로 SNS상에서의 도덕성이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SNS상에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입한 방대하고 다양한 「표현」 중에서 대한항공 086편 회항사건에 대해 언급된 댓글을 중심으로 「비난」의 뜻을 가진 내용만을 발췌하여 먼저, 한국과 일본의 「비난표현」의 양상을 분류하고 다음으로 그 「비난」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의 선행연구 검토는 대상의 언행에 대한 평가 또는 표현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도록 한다.

関崎(2010b)는 부정적평가의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회화 상대, 행동, 발화, 인식, 대화 상대가 호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 그리고 사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발화 중에 명시적이지 않은 표현방법을 분석하고 있다. 명시적이지 않은 평가에는 부정적평가의 의미를 가진 어휘나 표현, 부정형, 명령형, 금지형 또한 실제로 상대를 비판, 비난하거나 주의하는 기능을 가지는 발화, 상대에게 동의하지 않는 기능을 가지는 발화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関崎(2010b)는 부정적인 평가의 표현방법을 ① 감정의 표명 ② 화자 자신의 상황설명 ③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상황을 지적 ④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행위의 언어화 ⑤ 명시적인

표현의 반복을 피함 ⑥ 의문사로서의 말 바꿈 ⑦ 예화, 총 7가지로 나누고 발화에 중점을 두어 부정적인 평가가 되는지를 분석 하고 있다.

임시은(2015)은 「비난」의 표현방식을 3명의 대학원생 4그룹(한국인 2그룹, 일본인 2그룹)을 대상으로 한일 화자의 비교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화 중 상대의 일탈적 언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표현방식을 ① 부정적 평가 ② 추궁하기 ③ 확인하기 ④ 지적·묘사 ⑤ 부정·부인·금지 ⑥ 공감·이해의 불가 ⑦ 부정적 감정 표출의 7가지로 나누고 있다. 각 각의 장면에서 대화 중에 기대에 벗어나는 발화를 일탈이라 하고 일탈 다음의 발화를 「비난」이라 하여 이 「비난」이 전술한 7가지의 표현형식 중 어디에서 다수 출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난표현」의 출현양상을 関崎(2010b)의 ③에 해당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상황을 지적」을 참고로 임시은(2015)의 방법론적인 분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난」그 자체의 의미내용<sup>2)</sup>으로 분류한다. 분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2에 언급 하도록 한다.

### 3. 연구방법

#### 3.1 「비난」의 정의 검토

벤 대트너&대런 달(2015)은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비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비난하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비난」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어떠한 것인가? 먼저 「비난」의 뜻을 사전을 통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비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국어대사전(2004) 민중서림 제 7쇄 이희승 저)

2) 화자에게 거절할 때 사용하는 말을 그 의미내용에 따라 Beebe(1990) 등이 거절전략으로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① 「사죄」-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② 「이유」-선약이 있어서... ③ 「직접」-안돼, 싫어, 무리 등과 같이 나누고 있다. 「사죄」「이유」「직접」가 전략이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어서... 안돼, 싫어, 무리 가 의미내용에 해당한다. - 김정현(2015b)「거절장면에서의 완곡표현연구」『日本近代學研究』 제49집 수정 및 재인용.

非難 他人の欠点や過失を取り上げ、それは悪いと言って責めること。

(新明解国語辞典(2008) 三省堂 第六版 第12刷 山田忠雄 編)

위와 같이 확인이 되는 사전적 의미로 보아, 본 연구에서의 「비난」자료에 있어서 「비난」은 대상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말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사회적 기준에서의 정의구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비난」 댓글을 다는 당사자의 심리로는 가슴속의 분노와 울분 그리고 적개심 등이 적당한 상대를 만나게 되어 표출 된 것일 수도 있다. 즉,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광의적인 뜻으로 西尾(1998)는 마이너스 대우표현에서 마이너스표현이라는 것은 상대 또는 화제의 인물을 경시 하거나 욕하는 표현 즉, 낮춰서 취급하는 표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상대를 대우함에 있어서 마이너스에 범주에 들어가며 상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비난」의 의미를 가진 사전적 어휘로 비아냥, 조롱, 경멸, 욕설, 헐난, 비하, 질책, 빈정거림 등 많은 표현이 있다.

### 3.2 「의미내용」에 따른 「비난표현」 분류

본 연구에서는 「의미내용」에 따라 「비난」의 경우 ~라는 「비난」, 예를 들어 「이기주의라는 비난」, 또는 「구두쇠라는 비난」 등의 「명사+비난」이 아닌 화용으로서의 「비난」을 「의미내용」에 따라 분류<sup>3)</sup>하였다. 「비난표현」의 분류를 위하여 일본어를 교육하고 있는 동료 한국어 모어화자 2명(남1명, 여1명), 일본어 모어화자 3명(남1명, 여2명)에게 협조를 구하였다. 먼저 협력자에게 회화사건의 전말을 설명한 뒤 「비난」의 분류에 있어서 「의미내용」에 따라 분류할 것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은 「비난」의 「의미내용」을 텍스트로 제시하였다.

“비열한 년이다”

다음으로 필자가 질문을 하였다.

“비아냥거리는 것인가? 욕을 하는 것인가?”

3) 「비난」을 「의미내용」에 따라 분류하는데 있어서 어휘 선택은 조경순(2013)의 「발화동사구문에 대한 연구-보고, 명령, 청구, 비하, 질책 행위를 중심으로-」를 참고하였다.

위의 질문에 협력자는 “욕을 하는 것” 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필자는 위와 같은 표현은 「비난표현」 중 <욕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협력자와 「비난」을 하위 표현으로 분류한 결과 <비아냥> <욕설> <선언> <비유·비교> <실망> <질병> <비하> <질책> <자질> <분노>로 10개의 하위표현으로 나누어 졌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비아냥> <욕설> <선언> <비유·비교> <실망> <질책> <분노>로 7개의 「비난표현」이 출현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비아냥> <욕설> <선언> <비유·비교> <실망> <질병> <비하> <질책> <자질> <분노>로 총 10개의 하위표현이 출현하였다. 한국의 경우 일본의 <질병> <비하> <자질>의 「비난표현」은 출현하지 않았다.

이하의 <표 1>에 「비난」의 분류와 「의미내용」을 실례를 들어 각각 제시하였다. 제시한 예는 SNS상에 달린 댓글 그대로이므로 어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표 1> 「의미내용」에 따른 「비난」분류

No	비난 분류	「의미내용」	「의미내용」
1	비아냥	아시아나 직원모집 카페 바뀌나요 “우리예겐 조현아가 없다”	自家用機で客を運ぶとは、大したものです。
2	욕설	비열한 년이다	バカじゃないのコイツ
3	선언	대한항공 타지맘시다.난 안탄다	大韓航空には乗りたくないな
4	비유 · 비교	손자가 할머니 수레 끌고 가다가 아우디 차 긁었는데 아우디 차주 가 미안하다고 했던게 생각난당	北も南も同じようなもの
5	실망	(생략) 한국직항을 열어 줬길래 좋아했 는데..이젠 경유해서 라도 아시아 나 타야겠네	こんな人が副社長とは情けない
6	질병	-	火病!
7	비하	-	「バカでもチョンでも」って言語そのままだね。
8	질책	대한항공 주주들도 있을텐데 말 이죠...오너일가가 회사 마음대로 개판만들어 놓고 있는데 가만히 있나요?	そもそも誰のためのマニュアルなのかしら!?
9	자질	-	トップを努める器にあらず
10	분노	상식이 없군요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납니다	腹立たしいですね

### 3.3 연구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과 일본의 facebook에 게재된 허핑턴포스트의 기사에 달린 댓글로서 대상의 언행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댓글로 기입한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댓글에 달린 댓글은 대한항공 회항사건 자체에 달린 댓글이 아닌 누군가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다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는 미국의 자유주의 계열 인터넷 신문이다. 다양한 칼럼니스트가 집필하는 블로그로 정치, 미디어,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생활, 환경 운동, 세계 뉴스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2005년 5월, 아리아나 허핑턴이 설립하였다. 이하에 한국과 일본의 허핑턴포스트 게재된 facebook <그림 2>와 위키백과에서 조사한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 <그림 3>을 제시한다.



<그림 2> facebook에 게재된 허핑턴포스트재팬 및 허핑턴 포스트코리아



<그림 3> 위키백과 허핑턴포스트

대한항공 086편 회항사건의 경우 한국의 중앙방송사 및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서 기사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핑턴포스터의 기사 내용을 사용한 이유는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중앙보도처럼 기사내용 또는 댓글의 편집이 되는 일이 없고 특히, 소식의 빠른 확산과 지속적인 노출,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를 즉시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한 허핑턴포스터의 기사를 본 연구의 연구 자료로 하였다.

## 4. 결과 및 분석

### 4.1 결과

분석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비난」에 대한 출현 빈도와 「비난」의 종류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댓글을 단 사람의 성별 구분에 있어서는 페이스북 댓글에 접속하여 댓글을 기입한 사람의 정보에 접속하여 정보공개가 허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성비를 특정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연령대별로는 특정 지을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만을 볼 수밖에 없었다. 먼저, <표 2>와 <표 3>에 한국과 일본의 「비난표현」 출현수와 빈도를 나타내었다.

&lt;표 2&gt; 한국의 「비난표현」 출현 수 및 빈도(%)

한국		
비난분류	남	여
비아냥	21(35.6)	14(43.8)
욕설	14(23.7)	12(37.5)
선언	11(18.6)	3(9.4)
비교·비유	5(8.5)	0(0.0)
실망	4(6.8)	1(3.1)
질책	1(1.7)	1(3.1)
분노	3(5.1)	1(3.1)
합계	59(100.0)	32(100.0)

한국의 경우 총 221개의 댓글 중 91개의 「비난표현」이 출현하였다. 남성의 경우 59개의 「비난표현」, 여성의 경우 32개의 「비난표현」이 보였고, 남성과 모두 「비난표현」 중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순으로 <비아냥> <욕설> <선언>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비아냥>이 35.6%, <욕설>이 23.7%, <선언>이 18.6%로 댓글의 1/3이상의 「비난표현」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피해 알미운 태도로 비웃으며 놀리는 <비아냥>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비아냥>이 43.8%, <욕설>이 37.5%, <선언>이 9.4%로 한국인 남성에게 비해 「비난표현」으로 <비아냥>과 <욕설> 2가지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 남성과 마찬가지로 「비난」의 전략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피해 알미운 태도로 비웃으며 놀리는 <비아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3>에서는 일본의 「비난」 출현 수 및 빈도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일본의 경우 총 338개의 댓글 중 220개의 「비난표현」이 출현하였다. 남성의 경우 91개의 「비난표현」, 여성의 경우 38개의 「비난표현」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비아냥> <욕설> <비하>와 <자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비아냥> <실망> <질병>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비아냥>이 28.6%, <욕설>이 15.4%, <비하>와 <자질>이 12.1%로 댓글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비아냥>이 42.1%, <실망>이 13.1%, <질병>이 10.5%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 여성의 경우 「비난」의 전략으로 42.1%를 차지하고 있는 <비아냥>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남녀 모두 「비난」의 전략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피해 알미운 태도로 비웃으며 놀리는 <비아냥>을 「비난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일본의 「비난표현」 출현 수 및 빈도(%)

비난분류	일본	
	남	여
비아냥	26(28.6)	16(42.1)
욕설	14(15.4)	3(7.9)
선언	8(8.8)	3(7.9)
비교·비유	8(8.8)	2(5.3)
실망	0(0.0)	5(13.1)
질병	9(9.9)	4(10.5)
비하	11(12.1)	2(5.3)
질책	2(2.2)	2(5.3)
자질	11(12.1)	1(2.6)
분노	2(2.1)	0(0.0)
합계	91(100.0)	38(100.0)

<비아냥>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 3.1의 「비난」의 정의 검토에서 언급하였듯이 「비난」의 댓글을 다는 사람은 당사자의 가슴속의 분노와 울분 그리고 적개심 등이 적당한 상대를 만나게 되어 표출 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 대한항공 086편 회항사건에 「비난」의 댓글을 단 많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약자 이거나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위의 결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다. 즉, 가진 자의 갑질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이 「비난」의 전략으로 <비아냥>을 선택하게 한 가장 큰 이유이다. 다음으로 「비난」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가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비난」의 확대 출현 수(%)

구분	댓글내용	확대범위	출현 수(%)
한국	사회가 이상해지는 구나 경제가 좋아 지면 사람들 인격도 같이 성장해 야 할 텐데..	개인→민족	1(33.3)
	명령이 잘못된 건데?? 이놈의 나라는 염병 .. 노예 나라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벼랑으로 내몰리는 나라. 아파트 경비원이나 항공기 사무장이나 모습만 다를 뿐 파리목숨보다도 더 처참한 신세. ㅅㅂ	개인→국가	2(66.7)

구분	댓글내용	확대범위	출현 수(%)
일본	実に韓国人らしい事件。	개인→민족	19(76.0)
	さすが斜め上の国。	개인→국가	3(12.0)
	これだから、セウォル号みたいな事故になる～指示系統ができていない。完全に乗客を無視した行動。	개인→과거사건	3(12.0)

위의 <표 4>와 같이 한국과 일본 모두 개인의 「비난」에서 민족의 「비난」으로, 개인에서 국가로의 「비난」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경우 개인에서 민족으로의 확대 「비난」이 1개, 개인에서 국가로의 확대 「비난」이 2개로 모두 3개의 확대 「비난」이 출현하였고 일본의 경우 개인에서 민족으로의 확대 「비난」이 19개, 개인에서 국가로의 확대 「비난」이 3개, 특히 과거의 세월호 사고로 확대되는 「비난」이 3개로 총 25개의 확대 「비난」이 출현하였다. 일본의 확대 「비난」중 특히 개인에서 민족으로의 「비난」이 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과거역사에 바탕을 둔 민족적 감정 대립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4)</sup>

## 4.2 분석

이하에서는 각 각의 「비난」의 전략 중 대표적인 실례를 들어 화용의 입장에서 「비난표현」을 분석을 한다.

### <비아냥>

- ① 아시아나 직원모집 카피 바뀌나요 “우리에게 조현아가 없다”
- ② Cho’s air
- ③ 自家用機で客を運ぶとは、大したもんです。
- ④ 本当に韓国人らしいね。

関崎(2010a)은 “긍정적인 평가의 어휘는 긍정적인 평가만을, 부정적인 평가의 어휘는 부정적인 평가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sup>5)</sup>고 언급하고 있는데 <비아냥>이 이에 해당한다. 직접

4)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에 관련된 사건의 자료로서 반대로 일본에 관련된 사건의 자료를 한국인이 「비난」을 할 경우 일본의 민족에 대한 「비난」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는 추후 일본에 관련된 큰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비난」 댓글을 검토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적이고 마이너스적인 「비난」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에게 「비난」의 意를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의 경우 대한항공의 경쟁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언급하면서 선전문구로 당사에는 조현아와 같은 오너가 없다는 식의 <비아냥>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 「비난표현」이다. ②의 경우 본 사건의 당 사고기가 되는 대한항공을 빗대어 오너 일가의 姓인 「조」를 <비아냥>거리 Cho's air라고 한 「비난표현」이다. ③의 경우 대한항공에서 운영되는 비행기를 조씨일가의 자가용에 빗댄 「비난표현」이다. ④의 경우는 당 사고의 피의자인 조현아 개인의 「비난」에서 한국인 전체로의 「비난」으로 확대되는 경우의 「비난표현」이다.

<욕설>

- ⑤ 비열한 년이다.
- ⑥ 완전 미쳤네 대한항공... 법위에 나는구나.
- ⑦ 単なる馬鹿。
- ⑧ 韓国人は感情的で馬鹿な動物です。

<욕설>은 청자를 직접적으로 경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며 화자의 마이너스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을 말한다.(민승희 2010)<sup>6)</sup> ⑤에서 ⑧까지 구체적인 비열하다, ~년, 馬鹿가 기입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특히 ⑧의 경우 ④와 같이 개인에서 민족으로의 확대 「비난」을 하는 「비난표현」으로 한국민족 전체를 <비하>하는 「비난표현」으로도 해석된다.

<선언>

- ⑨ 대한항공 타지 않습니다. 난 안탄다.
- ⑩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항공 안탄다.
- ⑪ 大韓航空には乗りたくないな。
- ⑫ 大韓航空使わない。

⑨에서 ⑫까지의 예는 자신의 대한항공에 대한 不買의 意를 명제형으로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비교·비유>

- ⑬ 손자가 할머니 수레 끌고 가다가 아우디 차 긁었는데 아우디 차주가 미안하다고 했던게 생각난당.

---

5) 関崎(2010a)는 궁극적인 평가라 하더라도 비아냥의 뜻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6) 민승희(2010) 「罵り表現—近世の対称代名詞を中心として—」 『日本文化研究』第33輯, pp.163-182

⑭ 북에는 3대세습 김가네 남에는 3대세습 조가네

⑮ 北も南も同じようなもの

⑯ 高麗航空のがいいかもよー

⑬의 경우 댓글을 단 본인의 경험에서 가진 자의 겸손과 조현아의 언행을 비교하여 표현하는 경우이다. ⑭, ⑮모두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비유하여 「비난」을 하고 있고 ⑯의 경우는 북한의 대표항공인 고려항공이 낫다고 비교하여 「비난」하고 있다.

<실망>

⑰ 지금 휴스턴에서 살고 있고 얼마 전에 대한항공이 한국직항을 열어 줬길래 좋아했는데... 이젠 경유해서 라도 아시아나 타야겠네.

⑱ 진짜 실망스럽다...

⑲ こんな人が副社長とは情けない。

⑳ 人材を大切にしない人が上に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残念なことです。

⑰의 경우 문말의 “-좋아했는데...”에서 중도 수료형으로서 기대에 대한 실망의 모달리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이젠 경유해서 라도 아시아나 타야겠네”에서 “-라도” 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항공사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⑱, ⑲, ⑳의 경우 모두 직접적인 실망, 情けない, 残念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질병>

㉠ 韓国人特有の精神病、火病が發病ですね。

㉡ さすが火病の国

㉢ 火病!

<질병>이라는 「비난표현」은 일본 남녀 제 각각 약 10%를 차지하는 「비난」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화병’이라는 ‘병’을 한국인 모두에게 확대시키는 「비난」과 더 확대되어 한국 전체를 ‘화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나라로 확대시켜 「비난」하는 경우가 129개의 「비난표현」중 13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 경우처럼 한국인의 정신병을 「화병」이라는 Prototype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보였다.

<비하>

- ㉔ 「バカでもチョンでも」って言語そのままだね。
- ㉕ また「チョン」の馬鹿か。
- ㉖ (생략)これだからバカのチョンコは困る。

<비하>에 있어서는 「비난」대상만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는 반면, 한국인 전체를 <비하>하는 「チョン」「チョンコ」등의 어휘가 다수 출현하였다. 「チョン」「チョンコ」는 속어로서 일제말기에 한국인을 일본 자국민보다 하등의 국민이라는 뜻으로 쓰여 지고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기 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한국인은 일본인을 얹잡아 이르는 말로 ‘쪽발이’의 비표준어인 ‘쪽바리’라 부르고 있다.

<질책>

- ㉗ 대한항공 주주들도 있을텐데 말이죠...오너일가가 회사 마음대로 개판만들어 놓고 있는데 가만히 있나요?
- ㉘ 정말 이럴때 항공사노조는 뭐하는겁니까!
- ㉙ この女、何様のつもり??
- ㉚ そもそも誰のためのマニュアルなのかしら!?

조경순(2013)은 질책 발화동사를 “주체가 객체의 행위나 발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질책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이며 이러한 발화 행위의 의미 속성을 질책이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질책의 발화 동사로 꾸짖다, 꾸지람하다, 야단치다 등과 같은 어휘가 있는데 이러한 어휘의 「의미내용」으로 ㉗,㉘,㉙, ㉚이 해당한다.

<자질>

- ㉛ トップを努める器にあらず
- ㉜ (생략)親の七光りでここまで来たのでしょうか...
- ㉝ (생략)組織の長の資格がありませんね。

<자질>의 「비난표현」은 한국인의 「비난」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았다. ㉛과 ㉝의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럴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비난표현」

---

7) チョン과 チョン코는 「バカでも朝鮮人でも使用できるカメラ」의 줄임말. 중국인을 비하하여 「バカ チョンコロ」라고 한다.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030919070811154> 참조요망.

으로 당 항공사고의 피의자가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㉓의 경우 부모의 힘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분노>

- ㉔ 년 어디 까지 까여 봤니? 아주 까서 씹어서 입에다 넣어주고 싶다
- ㉕ 상식이 없군요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납니다
- ㉖ おまえが降りろとみんなが思うだろ。
- ㉗ 腹立たしいですね。

㉔의 경우 대한항공사의 광고문구<sup>8)</sup>를 패러디한 “년 어디 까지 까여 봤니?”와 이어지는 “아주 까서 씹어서 입에다 넣어주고 싶다”를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㉕의 예와 ㉗의 예는 직접적으로 화가 난 것을 명제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㉖의 경우 당 사고현장을 빌어 입장을 바꾸어 보면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다.

## 5.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대한항공 086편 회항에 대해 SNS기사에 달린 한국221개, 일본338개의 댓글 중 「비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한국의 경우 91개의 「비난표현」이 출현하였고 일본의 경우 220개의 「비난표현」이 나타났다.

먼저, 출현한 「비난표현」을 「비난」의 「의미내용」에 따라 총 10개로 하위분류가 가능하였다. 한국의 경우 <비아냥> <욕설> <선언> <비교·비유> <실망> <질책> <분노> 의 7개로 나뉘었고 일본의 경우 <비아냥> <욕설> <선언> <비교·비유> <실망> <질책> <분노> <질병> <비하> <자질>의 10개로 나뉘어졌다. 그 중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비난」의 전략으로 <비아냥>이 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개인의 「비난」에서 민족의 「비난」으로, 개인에서 국가로의 「비난」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관찰되었다. 특히 일본의 댓글 내용 중, 25개의 댓글이 확대 「비난」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주목되는 확대 「비난」의 내용으로 과거 세월호 사건을 거론하

8) 대한항공의 미국 52개주 행 선전문구로 “미국 년 어디까지 가 봤니?”가 있다.

는 내용 또한 관찰되었다.

끝으로, 분석된 자료에는 하나의 「의미내용」이 아닌 <욕설 + 비아냥>, <질책 + 욕설 + 비하> 등의 두 개 이상의 「의미내용」으로 결합된 것도 출현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비난표현」의 분석은 금후의 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関崎博紀(2010a)「日本語の会話における否定的評価の表現を含む発話の機能—発話のきっかけに注目して—」『Area Studies Tsukuba31』pp.45-64

\_\_\_\_\_ (2010b)「明示的ではない否定的評価の表現の方法—日本人大学生同士の会話資料から—」『国際日本研究』第2号、pp.117-138

西尾純二(1998)「マイナス待遇行動の表現スタイル—規制される言語行動をめぐって—」『社会言語科学』第1巻 第1号、pp.19-28

三宅和子(2016)「身近なやりとりからことばを見つめ直す」『日本語学』第35-2号、pp.40-51

김정현(2015)「거절장면에서의 완곡표현연구」『日本近代學研究』제49집, pp.123-138

민승희(2010)「罵り表現—近世の対称代名詞を中心として—」『日本文化研究』第33輯、pp.163-182

벤 대트너, 대런 달(2015)『비난게임』북카라반 출판

임시은(2015)「비난의 표현양식—한일 화자의 비교—」『일본연구』제65호, pp.351-373

조경순(2013)「발화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보고, 명령, 청구, 비하, 질책 행위를 중심으로—」『한국어의미학』제41호, pp.141-167

**【參考辭典】**

국어대사전(2004) 민중서림 제 7쇄 이희승 저

新明解国語辞典(2008) 三省堂 第六版 第12刷 山田忠雄 編

**【參考www 및 SNS】**

[https://ko.wikipedia.org/wiki/%ED%97%88%ED%95%91%ED%84%B4\\_%ED%8F%AC%EC%8A%A4%ED%8A%B8](https://ko.wikipedia.org/wiki/%ED%97%88%ED%95%91%ED%84%B4_%ED%8F%AC%EC%8A%A4%ED%8A%B8)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5d3015n1503>

[http://www.huffingtonpost.jp/2014/12/08/korean-air\\_n\\_6291720.html](http://www.huffingtonpost.jp/2014/12/08/korean-air_n_6291720.html)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09/story\\_n\\_6293658.html?m=true](http://www.huffingtonpost.kr/2014/12/09/story_n_6293658.html?m=true)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030919070811154>

---

논문투고일 : 2016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6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6년 08월 02일  
 2차 수정일 : 2016년 08월 08일  
 게재확정일 : 2016년 08월 15일

---

---

**<要旨>**


---

## 한·일 「비난표현」 연구

- 대한항공 086편 회항사건의 「비난」을 중심으로 -

김정현

본 연구에서는 SNS에 기입된 대한항공086편의 항공사고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비난을 발췌하여 비난의 의미내용을 화용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하위의 「비난표현」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비난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검토했다.

먼저 비난의 출현양상을 분류했다. 그 결과 <비아냥> <욕설> <선언> <비교·비유> <실망> <질책> <분노> <질병> <비하> <자질>의 10종류의 「비난표현」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의 경우 <비난> <욕설> <선언> <비교·비유> <실망> <질책> <분노>의 7종류가 관찰되었고 일본의 경우 <비아냥> <욕설> <선언> <비교·비유> <실망> <질책> <분노> <질병> <비하> <자질>의 10종류였다. 한일 모두 비난의 전략으로서 <비아냥>이라는 「비난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사회적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비난의 대상이 저지른 정의에 반하는 언행에 대한 반감이 높았기 때문이었다고 결과로 부터 생각된다.

다음으로 비난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분석한 결과 ①개인의 비난에서 민족으로의 확대 비난 ②개인의 비난에서 국가로의 확대 비난 ③과거의 사건에 이르는 확대 비난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확대 비난이 3건밖에 확인되지 않은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25건이나 확인되었다. 특히 개인의 비난에서 민족으로의 확대 비난이 19건이나 관찰되었다.

## A Study on the Expressions of criticism in Korea and Japan

- A Focus on the criticisms of Nut Return incident of Korean Air 086 -

Kim, Jeong-Heon

In this study, a researcher tried to classify the expressions of criticisms and analyzed the sematic contents of them from the standpoint of pragmatics.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excerpt of the SNS messages about the incident of Nut return of Korean Air 086. Those messages, most of which were criticisms, were written by Korean and Japanese people. Also the researcher examined the range of the criticisms.

First of all, the emergence aspects of criticisms were classified into 10 types of expressions, which were <sarcasm> <abuse> <declaration> <comparison · metaphor> <disappointment> <rebuke> <fury> <disease> <disparagement> <qualification>. In case of Korea, the researcher found 7 aspects such as <sarcasm> <abuse> <declaration> <comparison and metaphor> <disappointment> <rebuke> <fury>. In case of Japan, the researcher found out 10 types such as <sarcasm> <abuse> <declaration> <comparison · metaphor> <disappointment> <rebuke> <fury> <disease> <disparagement> <qualification>. The researcher found that both Korean and Japanese used <sarcasm> most frequently as a strategy for criticism. It is assumed that there was high antipathy against the person with high social status and power.

Additionally, the researcher analyzed how far the range of condemnation reaches; ① the extended condemnation from the individual toward ethnic groups ② the extended condemnation from the individual toward the nation ③ the extended condemnation up to the past incidents. In case of Korea, there were only 3 confirmed cases for the extended condemnations, as opposed to the case of Japan, where there were 25 cases. In particular, the researcher found 19 cases of the extended condemnations from the individual toward the nation.